



[산업] 신세대 총수시대 주요 과제는 '경영능력 검증' 08



Life

[산업] SK 'CES 2019' 참가 미래 모빌리티 총집합 L2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지자체 첫 출범 "공정경제 실현"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전담 각 계층 노동자 지원 정책 추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국단위 전담조직이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를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소셜벤처 등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드는 데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이뤄졌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일터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 정책자금 운용, 고용보험료 지원 등으로 민생행기기에 힘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지원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꾸려진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핀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

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기반조성,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역협동팀으로 꾸려진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인천시 보통교부세 5960억원 확보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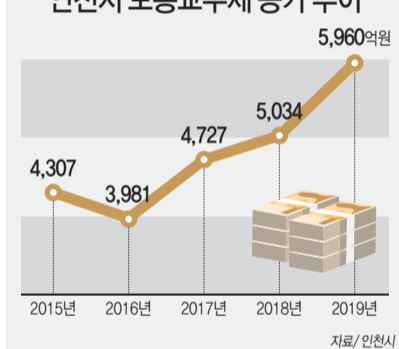
지난해 대비 18.4%↑ ... 최대규모 민선7기 현안 속도 낼 수 있을 것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596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보통교부세 5034억원보다 926억원(18.4%)이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몇 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지난해 5034억원 등 해마다 늘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 증가 추이



시는 국고보조금과 국가 직접 현안사업 예산을 합친 올해 국비 예산도

역대 가장 많은 3조81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비 예산과 보통교부세를 더한 올해 정부지원금도 3조67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축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서울스카에서 새해 첫 일출

2019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 새 글귀로 단장

시민 공모 통해 글판 문구 선정

기해년 새해를 맞아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이 새단장을 한다. 서울시는 희망을 담은 새해 첫 꿈새김판 문안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꿈새김판은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대형 글판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품을 시민 공모를 통해 글판 문구로 선정해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꿈새김판' 신년 문안 공모전을 실시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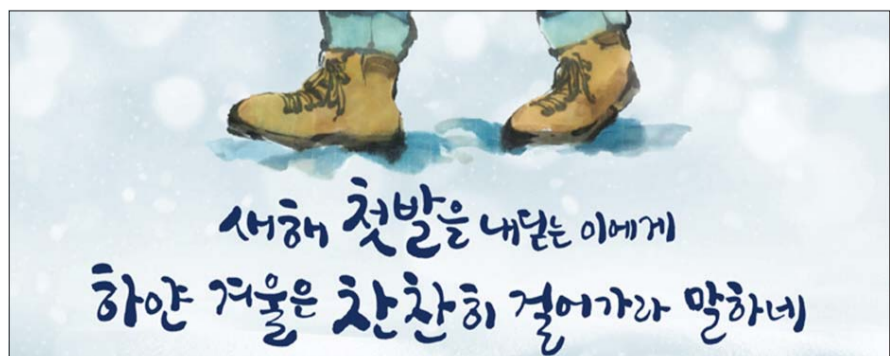
선작 1건과 가작 5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총 895건이 접수됐다.

당선작으로는 김경규 씨의 '새해 첫발을 내딛는 이에게 하얀 겨울은 찬찬히 걸어가라 말하네'가 뽑혔다.

김 씨는 "새해가 되었다고 또 조바심내며 달려나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창작한 문안이다"고 전했다.

공모전은 시인, 교수, 광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7인이 참여한 문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김현정 기자



꿈새김판 이미지.

/서울시

인천시, 올해 노인 일자리 3만2000개로 확대한다

920억 투입해 5400개 늘릴 것

인천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400개 늘려 3만27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예산보다 203억원이 늘어난 920억원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한다.

노인 일자리 분야는 실버택배, 등하곳길 도우미, 환경 지킴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해마다 노인 일자리를 1000개씩 늘려 2022년에는 3만6000개까지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노인 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이 맡아 진행한다.

정연용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다양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적정임금 지급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공사 품질·안전 확보 도움 될 것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 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도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영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